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100개사 선정 육성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기준 제조업·디자인 각 분야 선정 1대 1 매니저·자금 지원

광주시가 민선 6기 핵심공약으로 추진 해온 명품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위해 대상 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이들 기업에 대한 1단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육성 계획을 세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3일 “올해 선정한 13개 기업을 포함, 지난 2014년부터 총 100개 기업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기술혁신성을 가진 지역 중소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정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이면서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자동차 21개, 전기전자 16개, 광산업 15개, 금형 12개, 생체의료 7개 등 제조분야가 88개이며, 소프트웨어,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도 12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저리의 자금대출, 경영진단 및 컨설팅, 기업 맞춤형 지원, 융합 협업과제 컨소시엄 공모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특히 유장현 시장은 이미 선정된 명품강소기업 90개사



유장현 광주시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13일 오전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CEO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를 모두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또 중소기업청 등 16개 기업지원 기관으로 '명품강소기업 지원 협업체'를 구성해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명품강소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 같은 지원으로 중앙정부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한국형 히든챔피언인 월드클래스 300은 광주에서 2012년 1곳 이후 선정된

곳이 없었지만, 2014년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16년 남도금형(주), 2017년 지오씨(주)와 (주)성일이노텍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유관기관의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48명의 GFD(Gwangju Field Director·기업전담 매니저)를 기업에 1대 1로 배정해 기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명품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는 미달하나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고성성장하는 Pre-명품강소기업을 선정·육성해 'Pre-명품→명품강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월드클래스 300'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Pre-명품강소기업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으로 올해 공모에는 21개 기업이 신청, 10개사가 선정됐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시민 360명 “행복 광주 만들기 후원합니다”

클라우드 펀딩대회... '5·18 뮤지컬' 등 5개 목표액 달성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제1회 클라우드 펀딩대회'에 3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다. 참가인원이나 기부액 등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은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7월3일까지 열린 클라우드 펀딩대회에서 14개 프로젝트에 개인, 기업 등 360여 명이 참여, 4300만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프로젝트 5개가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포털사이트나 전문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아닌 자체 제작한 사이트로 운영해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순수 기부형으로 운영됐지만, 당초 모금 목표액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14개 프로젝트 가운데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5개 프로젝트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물없이도 깨끗한 대안 변기'를 만들어 봅시다' 1028만원(206%)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의 '투명한 관리로 행복한 아파트만들기' 629만 5000원(157%) ▲푸른솔합창단의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581만 5000원(116%)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광주전남지회의 '희망이가 다시 학

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504만원(101%)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제 작 및 홍보, 5·18 애곡대처' 504만원(101%)이 각각 모금됐다.

광주시는 14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목표액 달성, 참여자수, 아이디어 독창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심사해 상위 6개 프로젝트에 지원금 19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각 단체는 모금액과 시비 지원액을 총사업비로 7월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11월까지 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기부자, 단체, 시민들과 함께 기부형으로 운영됐지만, 당초 모금 목표액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또 올해 대회결과 나타난 아이디어 모집, 홍보부족, 지원예산 증액 등 여러 문제점 등을 파악해 내년 펀딩대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중현 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 이번 공익활동 클라우드 펀딩대회를 통해 시민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심사일만 후원해준 시민, 기업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제안 토론회.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3일 '광주도시철도 제안심사회'를 열고, 직원 및 고객들의 경영 제안 24건에 대해 김성호 사장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장 등 임직원, 기간제 사원을 포함한 일반 직원 등이 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동의의 여부와 예상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휴가철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광주정신건강센터 캠페인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신일선)는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 문빈정사 앞 잔디공원에서 중독폐해예방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6월~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24.6%로 연말연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돼 이를 막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광주지역 내 중독전문기관인 5개구 중독관리센터, 금연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스마트쉼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중독없는 행복한 세상, 황금휴가 100배 즐기기'라는 슬로건하에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중독폐해예방 연합캠페인을 했다.

이날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은 광주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밝은 분위기가 행사 내내 이어졌다.

행사내용은 ▲중독체험부스: 음주가상 체험(Fatal vision), 도박심리테스트, 금연 CO측정, 중독지식 O·X퀴즈 ▲중독정



보관:정보판넬 및 중독 모형전시 ▲건강부스:혈당 및 혈압측정, 생활건강안내 ▲중독전문상담 등이 진행됐다.

신일선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즐거워야 할 휴가철에 잘못된 음주행동이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을 높이고, 사형

성 도박,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시민들이 쉽게 중독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중독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평생학습 박람회 활성화

시민 80명 참여 토론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운)에서는 지난 12일 진흥원 4층 대강의실에서 광주 평생교육 관계자 및 시민 등 80여명 참석한 가운데 '광주다운 평생학습 박람회 활성화 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윤수 아주대 교수가 '2017년 평생학습축제의 길을 묻다, 평생학습축제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으며, “축제는 혼자서 아닌 여럿이 함께 하며, 집단의 결속과 공동체 문화, 공공과 공유의 문화,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써 학습 그 자체가 이미 축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와 토론에는 좌장인 임형택 광주대 교수를 중심으로 조성에 연세대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선경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전략사업실장, 채우공 은평구 평생학습관 총괄팀장, 김운수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2년 임기 10명 공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유장현, 이하 '조직위')는 12일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총임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해 공개채용 모집 공고를 냈다.

채용분야는 조직위 팀장급 4명과 팀원급 6명 등 총 10명이다. 팀장 채용분야는 ▲마케팅 ▲방송운영 ▲인력안전 ▲경기운영 분야에 각 1명씩이며, 팀원

채용분야는 ▲마스터즈대회기획운영 1명 ▲영어통번역 4명 ▲사진촬영 분야 1명이다.

채용기간은 2년이며,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지급된다. 원서접수(7.24~7.26), 서류전형(8.2), 면접시험(8.3~8.4)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오는 8월 7일 발표한다. /유현석기자chadol@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전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본 자연장은 이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